

농공단지 확대요건 완화

남원시, 농공단지 미분양 입주업체 농공단지 확장 가능

남원시는 앞으로는 농공단지 미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업체의 필요에 따라 농공단지의 확장이 가능해진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남원시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린 결과로, 지난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과제가 최종 통과되었다.

먼저 남원시는 테마형 규제개선 과제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해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지자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

안 마련되었다.

남원시 인월농공단지는 1986년도에 조성된 노후 농공단지, 입주기업인 CJ제일제당 남원공장은 추가적인 사업확대를 위해 부지 확장 및 적정규모의 공공폐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상황이나, 농공단지 개발관련 지침 상 시군구별 미분양 및 휴폐업을 조건으로 인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통해 앞으로는 객관적인 입지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분양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희망기업이 투자를 위해 시군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

면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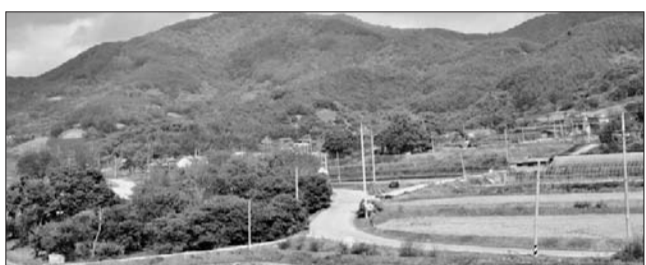
이에 남원시는 인월농공단지의 확대에 약 400억원의 신규투자와 2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또한 남원시는 약취지감시시설을 갖춘 동물복지형 양계농장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로 인한 추가사업 확장 곤란 등 기업 애로사항을 건의해 국무조정실 조정회의를 거쳐 2019년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인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낙후된 순창 심초마을 살만한 곳으로 '환골탈태'

군, '새마을사업' 일환



순창군 낙후지역인 심초마을이 농촌의 가치있는 마을로 탈바꿈 했다.

순창군 산간오지 낙후지역인 심초마을이 농촌의 가치있는 마을로 탈바꿈 했다.

낮은 잣빛의 슬레이트 지붕과 흙물스럽게 방치된 폐·공가, 허물어진 70년대 노후담장을 비롯한 모든 것이 열악했던 생활환경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마을)을 마중물로 삼아 대변신에 성공했다.

새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생활·위생·안전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6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13억 원을 들여 3년간의 노력 끝에 완공했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주도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돼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

주요 개선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

량 ▲에너지효율화 집수리 ▲빈집철거 ▲경관정화 요인제거 ▲담장정비 ▲당산수 솜터조성 ▲재래식화장실정비 ▲지푸실 복합문화센터 건립 ▲주민역량강화 및 휴먼케어 사업 등이 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가이드북 발간

임실군이 민선7기에도 중소기업 홍보에 팔을 걷어 부쳤다.

임실군은 기업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임실군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를 발간해 중소기업제품의 대대적인 생산품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1천부 A5 규격 70여 페이지로 생활용품, 음식료품, 첨단산업제품, LED·광 관련 제품, 건설·건축, 금속·기계설비 제품 등의 다양한 생산 제품을 수록하고 있다.

군은 중소기업체의 업종별·제조업체별 현황과 지원정책 등을 함께 소개하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안내책자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관공서, 전국 고속버스 휴게소, 전북도내와 임실군 읍면사무소에 안내책자를 비치함은 물론 해당기업체와 유관기관 등에도 배부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계획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낮은 인지도로 인해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판로지원을 위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임실군과 각종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적극적인 수요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실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등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튼튼한 재정기반 확보'

임실군, 군정 10대 이슈 최대 성과

임실군이 2018년 임실군정 최대 성과로 민선 7기 '모두가 하나되어 행복한 임실'을 위한 탄탄한 재정기반 확보를 꼽았다.

지난 28일 임실군은 역대 최초로 2019년도 첫 예산에서 4000억원대에 진입, 3년 예산 4000억원 확보 등 2018년 군정 10대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군은 처음으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4013억원으로 편성하고, 역대 최대 국가공모사업 선정과 더불어 국가예산 1000억원 확보를 이어가는 등 든든한 재정규모를 달성한 것을 첫 번째로 선정했다. 두 번째로 무소속 심 민 군수의 재선 성공을 통한 안정적인 민선 7기 출범과 빠른 대응을 꼽았다. 심 군수는 민주당 강세의 4년간의 임기동안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이뤄내며, 53.5%의 높은 지지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임실N치즈축제와 관련하여서는 뜻은 날찌에도 불구하고, 35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는 3층 규모의 임실N치즈전관을 오픈했으며, 사격장까지 갖춘 서바이벌 게임장을 준공, 전라북도의 대표적 토탈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갖췄다. 사계절 재미있고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가을에는 국화와 함께, 봄에는 장미와 함께할 수 있는 임실N치즈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97억원) 국비를 확보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간의 상생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전국에서 2개 지자체만 선정

하는 공공장묘시설사업을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유치, 오수공공동물장묘시설을 통한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 육성의 기반을 확보했다. 친환경적인 조성을 통해 생태 자연학습장을 갖춘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임실 전통시장 다기능 주차장 해소와 시장 활성화와 오수면 금암리 일대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양궁장이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공수들의 훈련장이 마련됐다.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개원 2년차를 맞은 봉황인재학당의 안정적인 운영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 중 하나다. 군은 올 한해 이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인정받아 압도적 분위기 속에서 민선 6기 4년간의 임기동안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이뤄내며, 53.5%의 높은 지지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임실N치즈축제와 관련하여서는 뜻은 날찌에도 불구하고, 35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대표관광지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는 3층 규모의 임실N치즈전관을 오픈했으며, 사격장까지 갖춘 서바이벌 게임장을 준공, 전라북도의 대표적 토탈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갖췄다. 사계절 재미있고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가을에는 국화와 함께, 봄에는 장미와 함께할 수 있는 임실N치즈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97억원) 국비를 확보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간의 상생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전국에서 2개 지자체만 선정

지역 매아리

임실군 농작물재해보험 농가에 '효자 노릇'

임실군(군수 심민)에서 추진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농가경영 안전에 큰 힘을 보태고 있어 농가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경영불안 해소 및 농가 스스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가의 보험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상기후와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으로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 결과 1,311 농가가 가입했으며 그 중 704농가에서 8억4,1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결과 나타났다. 관촌면 덕천리에서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올해 4월에 한파로 따른 배꽃이 방해피해를 입었지만 7,4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심민 임실군수는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앞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한다"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의 적극적인 가입을 통해 농가의 소득 및 농가 경영안정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넷째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 무료 제공

남원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019년부터 신규 시책으로 넷째 이상 자녀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상 넷째 이상 자녀로, 시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에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문 양성교육과 정기적 보수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아동의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등하원,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을 제공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여성가족과(063-620-6197) 또는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635-6700)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심뇌혈관질환 4년 연속 도 우수기관

남원시가 추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지역주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각종 행사, 관내 업체·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 질환의심자를 발견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튼튼한 고당교실은 운영해 공공보건의사와 전문인력의 교육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의 건강

지표 개선을 위해 남원시 의사회와 의료기관이 적극 협조해 사업을 추진했다.

경로당에서 심상생생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체조를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뇌졸중 교육을 병행하여 건강관리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순례 보건소장은 "2019년도에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